마음이라는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는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또 자식, 이렇게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서로서로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없는 무심의 자비심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맡겨 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정말이지 부모 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된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죠.

여러분이 항상 집안에서 요만한 코끼트리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식들한테라도 그 불충분한 말을 하시는 반면에, 그 춥고 배고픈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떠지고 흩어지고 이렇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모두가 종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차원의 그릇이 바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제가끔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그러는 걸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으니,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그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고, 또는 평등한 마음로써 부드럽게 항상 말해 줄 수 있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없이 말없는 데 가서 서로 접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해서 말로 듣게 하지 말고, 뜻으로 해서 뜻으로 듣게 이렇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무심으로서 바로 그 전달 없는 전달이 됨으로써의 그 가정은 밝아지고 바로 편안해지고, 바로 이 마음속에도 생명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행을 못 하고 말로만 배워서 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 공부를 해서 소견으로서 살지 말고 지견으로서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부드러운 말로 이끌어 줄 줄 알고 또 안아 줄 줄 아는 평등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요, 또는 자유인의 인간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요 이런 겁니다.

노인을 보면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린애를 보면 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또 같은 젊은이들을 보면 내 형제와 같이 생각을 하라. 사랑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진짜로 행을 그렇게 안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건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 보면 남도 배고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요? 내가 아파 보면 남이 아픈 것이 그렇게 참 눈물 나고, 그런 것을 자기가 지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재산 탕진하는 오빠가 원망스러워요

질문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공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희 오빠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부하는 불자로서 마음을 내 줘야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 관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괴롭습니다. 제가 마음을 녹이고 잘 관한다면 오빠도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알고 본다면, 그저 부처님 앞에 가서 빌어도 나를 위해서지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빈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그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가 안됐고 내가 살기가 어지럽고 내가 당장 좋지 못하니까 비는 거죠. 그렇듯이 정작 그렇게 상대와 나를 위한다면 안으로 불을 켜세요. 우리 한 식구가 열 명이라도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 불을 켤 수 있게끔 가설이 된 것처럼요. 그런데 가설은 다 돼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을 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불은 안 들어와요.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니까,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한마음이 내면에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대로 그 통신을 받고, 빛보다 더 빨리 움죽거려서 응신으로서 나투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로서 벌어먹지 못하고 그냥 극매는 것을 본다거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을 본다든가, 또 싸움을 해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본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들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서 '어휴, 저거….' 이런 게 있죠. 그냥 남을 해치기만 하고 일가친척인데도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이러면 마음이 가질 않죠?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건져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도리를 배우는 사람에 한한 것이죠. 내면에 꼭 '둘이 아닌데 모두가 불쌍하잖아!' 하고서 거기다 맡겼을 때에 바로 무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건지는 겁니다. 이 모두가 병을 낫게 해 줘도 건지는 거, 또 마음의 병을 낫게 해 주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하다 잘못돼 가지구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냥 이러고저러고, 미친 사람 모양으로 밥도 떠먹지 못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고선 잘 이렇게, 오는 대로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었더니 지금은 아주 괜찮게 나았어요. 그러니 그게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서 통신이 되면 모두 작용을 해 주기 때문이죠. 작용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몸도 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해야만 됩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들이 돌아가면서 우주간 법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그럼 지구에도 그런 법계가 있느냐? 지구에도 세포가 있죠, 인간에게도 세포가 있고요. 그래서 세포가 있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항상 마음으로써 그렇게 전달을 하면 안에서 누진(漏盡)으로 해서, 즉 골수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왜, 군인들이 통신을 받으면 재깍 돌진하죠? 재깍 일어나서 작용하죠? 그렇듯이 재깍입니다. 그러면서도 빛보다 더 빨라서 그 순간에 미국도 갑니다. 그 순간에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원에서 "스님, 각혈을 하고 영 이렇게 낫질 않는데 관해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다고 그러지. 하하하.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또 그 사람이 죄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못 합니다. 즉 말하자면 죄고 뭐고 다 둘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거죠. 이런다면 바로 재깍, 또 전화가 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피가 다 멈추고요, 이제 멀쩡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알았어." 하고 대답할 때나 나았다고 하는 전화를 받을 때나 똑같은 기분이에요. 더하고 덜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깨친 사람은 잘해도 잘한 거고 못해도 잘한 겁니다. 그게 못한 것이 아니니까요. 뭐가 잘못된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이 스님한테 오는데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마음이 삐뚤어져서 자꾸 달아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달아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서게 돼 있거든요. 그때에 해야 부러지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안 해 보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전연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쓰지 않고, 허허, 뭘로 쓸까요? 독사처럼 쓰기도 하고 또 강도처럼 쓰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다음 생에는 그냥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또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아주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 **제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커버를 못 할 때**
> **모든 걸 그냥 탁!**
> **모든 걸 죽든지 살든지 그냥 놔 버리고**
> **근본 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아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질문 좋은 부모, 좋은 아내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가고 싶은데 늘 저의 분별심이 먼저 작동하여 가정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제가 남편과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정말 자비로운 아내와 엄마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람은 물질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물질을 주고받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전자 '부(父)'와 현자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견성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게 없이 알고, 또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없이 알고,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법의 철퇴를 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쳤다 이런 게 없이, 모두 하나로 구성된 자리에서 법으로서 내리는 철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발 내려딛고 법신으로서 법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로 붙들려 가서 법으로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도 극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업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아무리 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기라고요. 자식이나 부부지간, 부모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친척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해도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정색을 해서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안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라고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 주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내 탓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할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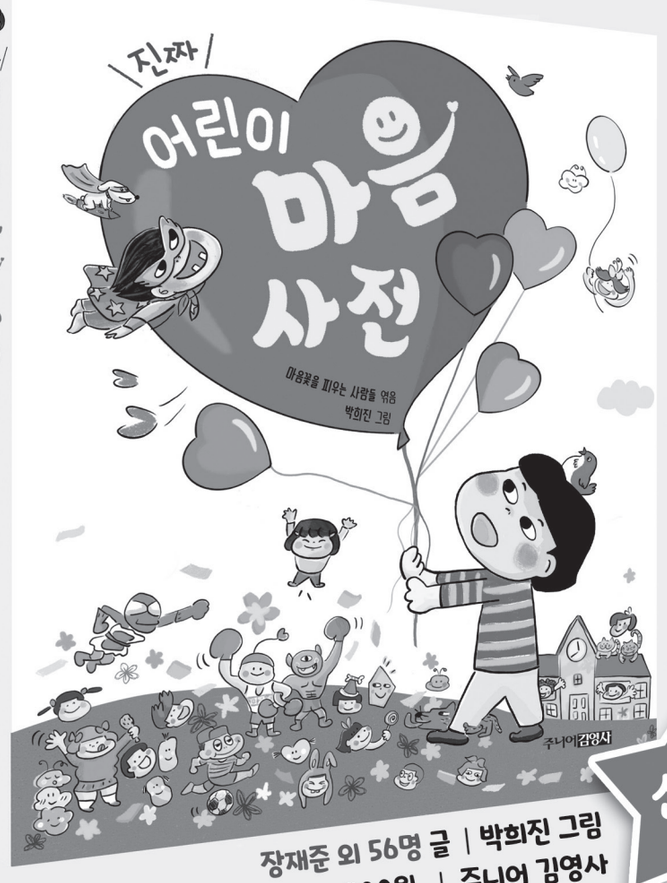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모두 내 탓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정과 부부와 자식 사이에 모두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목하고 자유스럽게 웃고 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남을 이익하게 해 주고 고통 속에서 건져 주는 바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지요

질문 좀 부끄러운 질문입니다만 다들 "공부 공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공부하는 것인지요.

답변 딴 게 없습니다. 생활 속에 공부는 있으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냥 자식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부모한테나, 만약에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악하게 굴어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을 자처하는 것이고, 또 아주 속이 상하더라도 내면에다가 '주인공, 당신만은 알잖아. 당신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괜찮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으시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을 한다면 지옥은 다 무너지고 업보도 다 무너지고 아마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